자료구조 01분반

전자전기공학부 20196891 이민영

피보나치 수열 구현 c 코드

```
#include <stdio.h>
#include <time.h>
#define MAX_n 100
#define MAX_FIB 40
int count rec = 0;
int count_memo = 0;
int fib_rec(int n) // recusive call 피보나치 수열
{
       count_rec++; //(3)을 위한 문장
       if (n == 0) return 0;
       if (n == 1) return 1;
       return (fib_rec(n-1) + fib_rec(n-2));
}
                       // memoization을 사용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함수
int fib_memo(int n)
{
       count_memo++; //(3)을 위한 문장
       static long long memo[MAX_n];
       if (memo[n] > 0)
               return memo[n];
       else if (n == 0)
               return memo[n] = 0;
       else if (n == 1)
               return memo[n] = 1;
       else {
               int f = fib_memo(n - 2) + fib_memo(n - 1);
               memo[n] = f;
               return f;
       }
}
int main() {
       int n;
       int i = 0;
       printf("n = ");
       scanf("%d", &n); //항의 수 입력 받기
       printf("\n");
       printf("(1) Fibonachi Algorith : recursive call\n");
       printf("피보나치 수열의 %d 번째 항 : %d₩n ₩n", n, fib_rec(n));
```

```
printf("(2) Fibonachi Algorith : recursive call with memoization₩n");
       printf("피보나치 수열의 %d 번째 항 : %d₩n ₩n", n, fib_memo(n));
       printf("(3) 두가지 프로그램의 시간 측정\n");
       clock_t st, et; //시작 시간과 마침 시간
       for (i = 1; i < MAX_FIB; i++) //1에서 39까지 1씩 증가시키며 관찰
       {
               printf("=== test case [%d]th₩n", i);
               st = clock();
               fib_rec(i);
               et = clock();
               printf("time_rec : %d₩n", et - st); //fib_rec 수행 시간
               st = clock();
               fib_memo(i);
               et = clock();
               printf("time_memo : %d₩n", et - st); //fib_memo 수행 시간
               printf("count_rec: %d count_memo: %d\mathbb{W}n \mathbb{W}n", count_rec, count_memo);
       }
       return 0;
}
```

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코드에서 각 함수의 역할은 모두 소스 내에 주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.

Fib_rec 함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열의 이전 항들의 값을 이용하므로, 함수 내에 같은 함수의 n-1과 n-2 값을 포함하도록 했다. 이 때, fib_rec(0) = 0, fib_rec(1) = 1 임이 주어졌다.

Fib_memo 함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fib_rec에서 출력되는 값을 순차적으로 배열에 입력해 메모하도록 한다.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높은 차수의 항을 계산하기 위해 낮은 차수의 항을 여러 번 계산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이전의 출력값을 memo[]에서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연산의 횟수와 구동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된다. 두 함수의 프로그램 수행 시간과 횟수를 비교한 (3)의 출력 결과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.

프로그램을 작성하며 memorization 이용 함수에서 처음에 return memo[n] = fib_memo(n-2) + fib_memo(n-1) 를 작성하려 했으나 연산자 오버플로 경고가 발생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int혈 변수 f 를 생성하고, f에 memo[n]의 값을 입력한 후, f를 return하도록 수정했다.

Recursion을 이용하면서 작성된 함수가 매우 간단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, memoization를 이용해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.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더욱 효육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

결과 출력

time_rec: 0

n = 7time_memo: 0 count_rec: 99 count_memo: 19 (1) Fibonachi Algorith: recursive call 피보나치 수열의 7 번째 항:13 === test case [7]th time rec: 0 (2) Fibonachi Algorith: recursive call with time_memo: 0 memoization count_rec: 140 count_memo: 20 피보나치 수열의 7 번째 항:13 === test case [8]th (3) 두가지 프로그램의 시간 측정 time_rec: 0 === test case [1]th time_memo: 0 time_rec: 0 count_rec: 207 count_memo: 23 time_memo: 0 count_rec: 42 count_memo: 14 === test case [9]th time_rec: 0 === test case [2]th time_memo: 0 time_rec: 0 count_rec: 316 count_memo: 26 time_memo: 0 count_rec: 45 count_memo: 15 === test case [10]th time_rec: 0 === test case [3]th time_memo: 0 count_rec: 493 count_memo: 29 time_rec: 0 time_memo: 0 count_rec: 50 count_memo: 16 === test case [11]th time_rec: 0 === test case [4]th time_memo: 0 time_rec: 0 count_rec: 780 count_memo: 32 time_memo: 0 count_rec: 59 count_memo: 17 === test case [12]th time_rec: 0 === test case [5]th time memo: 0 time_rec: 0 count_rec: 1245 count_memo: 35 time_memo: 0 count_rec: 74 count_memo: 18 === test case [13]th time_rec: 0 === test case [6]th time memo: 0

count_rec: 1998 count_memo: 38

count_rec: 92752 count_memo: 62 === test case [14]th time_rec: 0 === test case [22]th time_memo: 0 time_rec: 3 count_rec: 3217 count_memo: 41 time_memo: 0 count_rec: 150065 count_memo: 65 === test case [15]th === test case [23]th time rec: 0 time_memo: 0 time_rec: 4 count_rec: 5190 count_memo: 44 time_memo: 0 count_rec: 242800 count_memo: 68 === test case [16]th time_rec: 0 === test case [24]th time_memo: 0 time_rec: 6 count_rec: 8383 count_memo: 47 time_memo: 0 count_rec: 392849 count_memo: 71 === test case [17]th time_rec: 0 === test case [25]th time_memo: 0 time_rec: 10 count rec: 13550 count memo: 50 time memo: 0 count_rec: 635634 count_memo: 74 === test case [18]th time_rec: 0 === test case [26]th time_memo: 0 time_rec: 16 count_rec: 21911 count_memo: 53 time_memo: 0 count_rec: 1028469 count_memo: 77 === test case [19]th time_rec: 1 === test case [27]th time_memo: 0 time_rec: 28 count_rec: 35440 count_memo: 56 time_memo: 0 count_rec: 1664090 count_memo: 80 === test case [20]th time_rec: 1 === test case [28]th time_memo: 0 time_rec: 42 count_rec: 57331 count_memo: 59 time_memo: 0 count_rec: 2692547 count_memo: 83 === test case [21]th time_rec: 1 === test case [29]th

time rec: 70

time memo: 0

time_memo: 0

count_rec: 4356626 count_memo: 86

time_rec: 3144 time_memo: 0

count_rec: 204668310 count_memo: 110

=== test case [30]th

time_rec: 112 time_memo: 0

count_rec: 7049163 count_memo: 89

=== test case [38]th

time_rec : 4911

time_memo: 0

count_rec: 331160281 count_memo: 113

=== test case [31]th

time_rec: 168 time_memo: 0

count_rec: 11405780 count_memo: 92

=== test case [39]th

time_rec: 8193

time_memo: 0

count_rec: 535828590 count_memo: 116

=== test case [32]th

time_rec: 331 time_memo: 0

count_rec: 18454935 count_memo: 95

이 창을 닫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...

=== test case [33]th

time_rec: 443 time_memo: 0

count_rec: 29860708 count_memo: 98

=== test case [34]th

time_rec: 763 time_memo: 0

count_rec: 48315637 count_memo: 101

=== test case [35]th

time_rec: 1156 time_memo: 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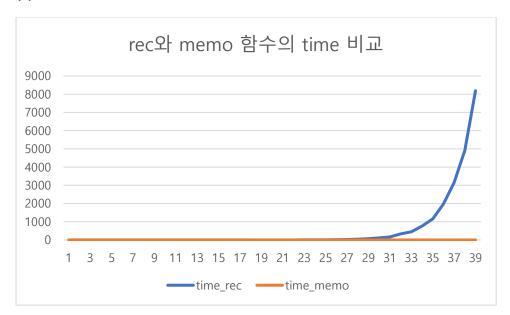
count_rec: 78176340 count_memo: 104

=== test case [36]th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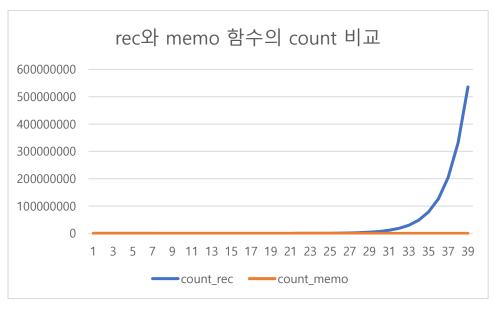
time_rec: 1968 time_memo: 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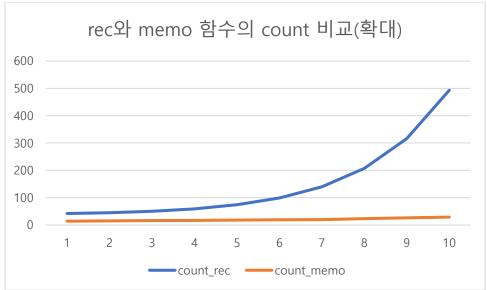
=== test case [37]th

(4) 수행의 값들로 그린 그래프 관찰의견



수행시간을 살펴보았을 때, memoization을 이용한 fib_memo 함수는 수행의 끝까지 0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실행 시간이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. 반면 recursive call만을 이용한 fib_rec 함수의 경우, 약 27번째 실행까지는 time_rec과 큰 차이가 없지만, 이후로는 지수함수의 형태를 띄며 급격히 수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. 이로써 memoize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재귀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



추가적으로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산의 횟수를 살펴보면 count_rec와 count_memo 모두 n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, recursive call 만 이용했을 때에는 횟수가 지수함수의 형태로 매우 큰 수까지 증가하는 반면, memoize를 이용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행 횟수만으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.